

## 儒敎의 死生觀

薛泰熙

一

儒敎의 道는 往生을 溯考치 안으며 또 來生도 研究치 안코 오직 現生만에 注重한다. 現生만을 重要하기 爲문에 道의 進行을 時間과 處地를 嚴守하는데 準據하여 사람의 日常生活에 實用化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敎를 가르켜 世間敎 또는 實踐道德이라고 하는 것이다. 世間敎라는 것은 非世間敎에 對한 말이고, 實踐道德이란 것은 非實踐主義에 對한 말이다. 그 非世間, 非實踐이란 辭旨가 人生 實生活과는 交涉이 薄弱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할진대 그 世間敎, 實踐道德이란 命名은 오직 人生의 實生活과 關聯이 切實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獨斷的 論斷이 아니라 그 敎學上文典에 布在한 것과 그 敎의 獨特한 方術인 政敎一致의 刻率에 비추어 明白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孔子-季路의 『問死』에 對하여 『未知生, 爲知死』라고 對答하였스니 이는 季路의 躡等하려는 心意를 警戒하려는 敎育의 一法이다. 말하자면 『네가 生하는 理致도 모르면서 왜 死하려는 理致를 알려고 하느냐?』하는 꾸지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一季路에게 對한 警戒로만 보지말고 同時에 그 抱負 經綸上, 全鼎의 一■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생각한다.

『人の 命과 性は 무엇이나?』하는 魯哀公의 물음에 對하여 孔子는 『道에서 分한 것이 命이고, 一(完成한 個性)에 形한 것을 性이라 하고 陰陽(元素)에서 化하여 象形된 것을 生이라 하며, 化-躬하고 數-盡함을 死라 하니, 故로 命은 性の 始요, 死는 生の 終이라.』

하였스니 이로써 보건대 生死 超越을 暗示한 見識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그 敎育에 잇서서는 嚴鼎하게도 躡等の 弊를 防杜하려고 한 것이다. 『死는 德의 歸』라 하며 『大哉라 死여 君子息 小人伏』이라는 等 無責任한 厭世主義와 『生死已無變이어든 하물며 利害의 端이겠느냐?』하는 等の 馳騫主義

들과는 그 出發點부터 懸殊한 差異가 있다.

## 二

내가 본 儒敎의 人生觀은 純全히 責任 觀念을 土垠로 하여 스스로 天地 萬物의 主人이 된다는 것이다. 『參天地, 贊化育』을 하여 裁成補相의 大德을 일우라는 自負를 가진 것이다. 말하자면 天地의 氣運(陰陽=元素)에서 象形을 일운 生이니까 이 生이 곳 小宇宙라고 自處한 것이다. 적기로는 滄海一粟과 갓다 하더라도 稟賦한 理法은 모다 大宇宙의 理法과 다름이 업다는 말이다. 이것이 이른 바 『天人相與』라는 것이다. 天人相與라는 見地에서 『天地萬物, 皆爲一體』라는 데까지 想到하면 스스로 萬物 靈長的 責任感이 더욱 두터워 질 수 맞게는 없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반듯이 天과 地의 運轉 進化의 理法을 본 바든 것이다. 例를 들면 易, 水地比卦象에 『地上有水-比, (地勢平하면 水勢도 平하고, 地勢險하면 水勢도 險함이 比等하다는 뜻)君子, 以, 建萬國, 親諸侯.』

라 하얏스니 이는 사람과 사람은 서로 平等(比)으로 親하여야 되겠다는 見解며 同, 天火同人卦象에 『天與火-同人, (天은 太陽이니 天과 火가 同類라는 뜻)君子, 以, 類族, 辨物.』

이라 하얏스니 이는 物과 物은 서로 제 同類를 쫓는다는 見解다. 이를테면 潛類는 潛類와 社會되고 龍類는 龍類와 人類는 人類와 社會된다는 말이다. 『空谷之中에 見似人者而喜』라는 말도 잇거니와 사람의 同類意識은 同情心의 互發을 促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儒敎는 이 同情心(愛)이 사람의 天性임을 認識하고 『仁者人也』(仁의 古字. 『ㄷ』은 二人이라는 象形이니 社會的 成群的 意味도 있다.)라 하여 『仁』으로써 敎義의 根本을 삼은 것이다.

## 三

生成有爲하는 天理가 이미 大德이오, 大仁이라. 그를 한 稟賦한 人生의 『生』도 亦是 大德이며 大仁이다. 그러므로 儒家의 『生』에 對한 觀念은 이러케 嚴重하고 浩大하다. 桓魋가 孔子를 害코저하매 孔子 말하기를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 何』

하얏스니 自己의 生命을 信仰함이 이가치 確乎하얏다.

顏淵의 死를 노코 『噫, 天喪予, 天喪予』라 한것이며 子路의 太強을 꾸지저 『若由也, 子得其死然』이라 한 것이던지 子夏의 『死生有命』 孟子의 『知命者 不入岩墻之下』. 『盡其道而死者 正命也』라 한 것 등이 모다 『生』을 重하게 녀인 것을 表示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타고 죽는 것을 턱 업시 두려워하고 苟且하게 앓긴 것은 決코 아니다.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이란 一言만 보더라도 죽을 일에 죽는 것은 心安德全으로 생각한 것이다.

『子貢, 問政, 子一曰 足食足兵, 民, 信之矣』. 『子貢, 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등의 問答으로 보더라도, 밥이 업스면 죽는 것이지마는 차라리 兵과 食이 업서 죽을지언정 사람이 미뎀(信)이 업스면 서지(立)못한다한 것이다. 孟子的 말에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 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 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 患有所不避也』

라 한 것 등을 보아서 이네들의 미뎀은 오직 사라서(生) 할 일을 잘하겠다는 自負心이니 이를 高調하여써 萬物 靈長的 責任感의 聖化覽化로의 人格的 人生觀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 四

『朝聞道, 夕死, 可也.』

『殀壽國戴, 修身以俟之.』

『仁以爲己任, 不亦中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殺身以, 成人.』

등은 모두 一種의 生死 超越이다. 그러나 厭世의 生死 超越이나 虛誕的 生死 超越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點이 잇스니 儒敎의 生死 超越은 徹頭徹尾 一動一聲에 모두 可 以死, 可以生하는 森嚴한 義理辨, 廉恥辨으로의 中庸主義의 仁術이다. 이러므로 이들의 人生觀은 『天工人其代之』라는 一言으로써 縮觀 할 수 잇스니 儒敎의 死生觀은 正面으로 보아서 너무 嚴肅한 觀이 업지만으 나 橫으로 보면 차라리 正直한 觀이 만히 잇다. 小宇宙로 自處하는 『生』의 價値를 完全히 하려니까 正命의 限度까지는 그 性能을 最大限으로 發揮치 안을 수 업스나 萬一 그 所惡가 『有甚於生』인 境遇에는 斷乎하게 捨生取義를 一死에 부치는 것이다. 다못 그 『死』는 死를 爲한 死가 아니고 『生』의 全德을 爲한 死라고 할 것이다. (끝)